

## 성인속성영어교육에서 말하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방법

김 경 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부문 일군들의 역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관심을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외국어교육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세계적으로 리용되고있는 교수내용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성인속성영어교육의 목적과 성인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그들의 말하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성인속성영어교육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여러가지 형식으로 대답할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할수 있다.

여러가지 형식으로 대답할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정확한 대답이 한개가 아니고 여러개인 과제를 제시하여 매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말하기교수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여러가지 형식으로 대답할수 있는 과제는 한가지 형식으로만 대답할수 있는 과제와는 반대로 정확한 대답이 여러개인 과제이다. 따라서 여러가지 형식으로 대답할수 있는 과제를 수행할 때 학생들은 교원이 제시한 질문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대답할수 있다.

실례로 어떤 본문을 배운 다음 한가지 형식으로만 대답할수 있는 과제로서는 《What did the man do in the shop?》와 같은 질문을 제시하지만 여러가지 형식으로 대답할수 있는 과제로서는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he did?》, 《Why do you think so?》, 《Do you think it was good that ...?》, 《Why do you think they said to each other?》, 《What do you think he/she was thinking?》과 같은 질문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기 식의 대답들을 발표하도록 한다.

성인속성영어교육에서는 한가지 형식으로만 대답할수 있는 과제보다 여러가지 형식으로 대답할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이 학생들의 말하기능력을 높이는데서 더 효과적이다.

성인속성영어교육의 말하기교수에서 여러가지 형식으로 대답할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영어본문에서 특정한 부분을 학생들이 자체로 만들어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읽기본문이나 대화본문에서 이야기되는 대상이나 시간, 장소 등을 학생들이 자기 식으로 만들어 본문을 완성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교과서의 본문에서 특정한 부분들을 지우고 그대신 《what》(무엇), 《who》(누가), 《when》(언제), 《where》(어디서), 《which》(무엇을), 《how》(어떻게) 등 특수의문사들을 써 놓고 학생들이 자체로 자기 식의 대답을 만들어보도록 한다.

레: A long-distance truck driver stopped for a meal (where? when?). The driver was eating and drinking (what?) when some young men from a motor-cycle gang (how many? describe them) came in and started causing trouble (how?). They drank the driver's drink (what?) and ate some of his food (what?). The driver did nothing. He got up, paid the bill and left. One of the young men spoke to the café owner. "That driver isn't much of a man", he said. The owner was looking out of the window and replied, "He isn't much of a driver either. He's just driven his truck over some (how many?) motorcycles."

(한 장거리자동차운전수가 식사를 하러 (어디에서? 언제?) 멈추었다. 그 운전수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있을 때 모터찌클무리에서 내린 여러 젊은이들이 (몇명? 그들을 묘사하시오.) 들어와서 (어떻게?)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 운전수의 (무슨?) 음료를 마시고 그의 (무슨?) 음식의 일부를 먹었다. 그 운전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서 계산서를 청산하고는 나갔다. 젊은이들중 한명이 음식점주인에게 말하였다. 《저 운전수는 사내답지 못하구만.》 음식점주인은 창문밖을 내다보고있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운전수답지도 못하구만요. 방금 모터찌클 여러대를 (몇대?) 깔아뭉갠으니 말입니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괄호안에 있는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보는 과정에 문장구조에 대하여 더 깊이 인식하게 하며 단어들의 쓰임을 더 잘 알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필요한 단어들을 찾아 말해보는 과정에 이미 기억했던 단어들을 다시 되새길수 있게 해준다.

둘째로, 대화의 절반부분만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대화본문에서 어느 한 사람이 하는 말만 제시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은 학생들이 자체로 만들어 말해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중급영어강독》(강습소) 2과 《What do you do?》(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의 대화본문을 실례로 들어보기로 하자.

Jason: Where do you work, Andrea?

Andrea: I work for Thomas Cook Travel.

Jason: Oh, really? What do you do there?

Andrea: I'm a guide. I take people on tours to countries in South America, like Peru.

Jason: How interesting!

Andrea: Yeah, it's a great job. I really love it. And what do you do?

Jason: Oh, I'm a student, and I have a part-time job, too.

Andrea: Where do you work?

Jason: In a fast-food restaurant.

Andrea: Which restaurant?

Jason: Hamburger Heaven.

교원은 이 대화를 연습할 때 학생들에게 제이슨(혹은 앤드리어)의 대사가 없는 대화를 제시하여 그들이 제이슨(혹은 앤드리어)대신에 그가 말할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들을

여러개 만들어보면서 대화를 완성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대화본문을 전수하기 전에 적용할수도 있고 전수가 다 끝난 다음에 적용할수도 있다. 대화본문을 전수하기 전에 이 방법을 적용하면 학생들이 제시된 한 사람의 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예측하면서 대화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꾸며나가는 과정에 해당 주제정황에 따르는 문장구성능력과 기초문장활용능력을 키워나갈수 있다. 그리고 대화본문을 전수한 다음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지 않게 하고 이 방법을 적용하면 그들이 본문 내용을 원만히 파악하고 본문의 문장들을 쉽게 새기도록 하는데서 매우 효과가 있다.

이 방법은 또한 구두로 진행할수도 있고 교원이 대화에서 어느 한 인물이 말하는 문장들을 모두 지운 종이장들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진행할수도 있다.

셋째로, 한사람의 대사만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대화본문에 등장하는 어느 한 인물의 대사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대화의 절반부분만을 제시하는 방법과 같지만 학생들에게 그들이 말하게 될 문장들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는 대화의 절반부분만을 제시하는 방법과 반대이다. 여기서 기본은 학생들이 말하게 되는 문장들을 다른 학생의 말이 끝날 때 제시하는것이 아니라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번에 다같이 제시한다는것이다.

실례로 위의 실례대화를 전수하기 전에 학생들이 두명씩 조를 짓도록 하고 그들에게 각각 제이슨 혹은 앤드리어의 역할을 맡겨주었다. 그리고 앤드리어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는 앤드리어가 말하는 문장들을 따로 적은 종이장들을, 제이슨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는 제이슨이 말하는 문장들을 따로 적은 종이장들을 각각 한장씩 나누어준다. 그다음 학생들이 자기가 받은 종이장들을 읽어본 후에 제이슨(혹은 앤드리어)이 말할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빗선을 치도록 하고 그들이 그 빗선에 따라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한다.

**Jason**

Where do you work, Andrea? Oh, really? What do you do there? How interesting! Oh, I'm a student, and I have a part-time job, too. In a fast-food restaurant. Hamburger Heaven.

**Andrea**

I work for Thomas Cook Travel. I'm a guide. I take people on tours to countries in South America, like Peru. Yeah, it's a great job. I really love it. And what do you do? Where do you work? Which restaurant?

한사람의 대사만을 제시하는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황과 문맥에 따라 말을 이어나가는 묘리를 알수 있도록 하는데서 매우 좋은 방법이다.

넷째로, 본문내용을 예측하여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본문내용을 전수하기 전에 학생들이 교과서의 연습문제에 제시된 질문들이나 옳은답선택하기와 같은것들을 읽고 그에 대답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예측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질문들이나 옳은답선택하기와 같은 연습문제들에는 학생들이 본문내용을 어느 정도 알수 있게 하는 단어들과 표현구들이 들어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연습문제들을 읽는 동안에 그러한 단어들과 표현구들을 리용하여 본문내용을 예측하게 되며 그 예측에 기초하여 연습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본문을 읽거나 듣지 않고도 본문의 기본내용을 일정한 정도로 파악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기들의 예측으로써 얻어진 대답들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문을 더 적극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더 주의깊게 읽거나 듣게 된다.

이 방법은 언어정황적인 지식이 풍부한 성인학생들에게 아주 적합한 방법으로서 그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는것과 함께 이미 알고있는 주제정황을 리용하여 본문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수 있게 하며 해당 주제정황에 따르는 말하기능력을 높일수 있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섯째로, 본문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대화나 읽기자료로 된 본문을 전수한 다음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추측에 기초하여 본문의 내용을 리속하여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시말하여 비록 교과서에 제시된 본문의 내용은 끝났지만 학생들이 그 본문의 주제정황과 내용에 맞게 대화를 계속해나가거나 읽기본문의 내용을 계속하여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실례로 우에서 언급한 《중급영어강독》(강습소) 2과의 대화를 취급한 다음 학생들에게 이 대화가 앤드리어의 집에서 저녁식사전에 진행된다는것을 알려주어 그들이 제이슨이나 앤드리어라고 가정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진행하게 되는 대화를 상상하여 대화를 리속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본문의 내용을 새긴데 기초하여 이미 배운 언어자료들과 함께 자기들의 생활경험을 안반침하면서 대화를 재미있게 엮어나가게 된다.

성인속성영어교육에서는 다음으로 언어정황을 제시하여 말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할수 있다.

언어정황을 제시하여 말하도록 하는 방법은 교원이 여러가지 형태의 직관물들을 리용하여 학생들에게 정확한 언어정황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각이한 정황에 맞게 말하기련습을 진행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언어정황을 제시하여 말하도록 하는 방법에는 교수에서 리용하는 직관물의 종류에 따라 삽화를 리용하여 언어정황을 제시하기, 실머리카드를 리용하여 언어정황을 제시하기, 역수행카드를 리용하여 언어정황을 제시하기 등이 있다.

첫째로, 삽화를 리용하여 언어정황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그림 또는 사진을 비롯한 삽화를 제시하여 그들이 그 삽화에 따르는 정황에 맞게 말하기련습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실례로 《초급영어강독》(강습소) 17과 《Please call me Beth》(저를 베스라고 불러주시시오)에서 《인사 및 소개하기》에 쓰이는 표현구들을 전수한 다음에 각이한 장소에서 각이한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는 사진이나 그림들을 여러개 제시하여 그들이 그 사진이나 그림들에 따르는 대화를 진행하도록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사진이나 그림들에 밝혀진 장소와 사람들에 따라 표현구들을 바꾸어가면서 서로 만나서 주고받는 인사말들을 쉽게 리습할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에 따라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정황에 맞게,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맞게

말하기련습을 진행하도록 하는데서 매우 좋은 방법이다.

둘째로, 실머리카드를 리용하여 언어정황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말하려는 실제적인 정황들이 적혀진 실머리카드를 리용하여 학생들에게 언어정황을 제시해주는 방법이다.

실머리카드를 리용하는 모든 련습들에서 학생들은 두명씩 조를 짓고 카드 A나 카드 B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기 카드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한다. 교원은 적어도 3~4개의 짝으로 된 카드묶음들을 준비해두었다가 한개 묶음에 대한 련습이 끝나면 카드들을 바꾸어주어야 한다.

**A**

Choose the best reply in response to B.

A: What do you think the weather'll be like tomorrow?

B: .....

A: a) I hope so. We're going camping.

b) Oh I hope not. We're going sailing.

c) Is it really? That's good. We're going skiing.

B: .....

A: a) I haven't. We're going with friends.

b) With lots of warm clothes, it's O.K.

c) Why don't you join us?

B: .....

A: a) Great!

b) Sure!

c) That's a shame!

**B**

Choose the best reply in response to A.

A: .....

B: a) Oh it'll probably rain again.

b) Well the weather forecast is good.

c) It could be quite nice again.

A: .....

B: a) Really? There wasn't much snow last weekend.

b) Really? I didn't know you had a boat.

c) Really? Isn't it a bit cold at night this time of year?

A: .....

B: a) I'd love to but I'm a bit busy this weekend.

b) I'd love to. Could Jane come along too?

c) Oh! That would be nice.

이러한 《기능적》실머리들을 리용하는 연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정황에 따르는 문형들에 어렵지 않게 정통할수 있게 되며 교원은 긴 설명이 없이도 강의에서 주려는 내용을 쉽게 학생들에게 습득시킬수 있다.

셋째로, 역수행카드를 리용하여 언어정황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역수행카드란 학생들이 대화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적혀진 카드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역수행카드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경력은 어떠한가, 주어진 대상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등을 알려주고 그들이 수행하여야 할 대화과정을 제시해주는 카드이다.

실머리카드와 역수행카드가 다른 점은 실머리카드에는 학생들이 대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문장들이 적혀져있다면 역수행카드에는 그러한 문장들이 아니라 대화에서 학생들이 수행하여야 할 역과 정황만이 적혀져있다는것이다.

역수행카드에는 실지 학생과는 다른 인물 즉 접대원, 자동차운전수, 지어는 화성사람과 같은 역과 함께 《You are in a restaurant. Order a meal.》(동무는 식당에 있습니다. 식사를 주문하십시오.)과 같은 정황이 지적되어있으며 그 인물들이 해당 정황에 따라서 가고있는 의견들도 제시된다.

역수행카드를 리용하는 말하기교수에서 학생들은 대화를 창조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교실을 벗어나 여러 장소들에서 쓰이는 문장들을 말해볼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역수행카드를 리용하여 진행하는 말하기교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자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맡은 역을 정확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학생들이 역수행카드를 받은 다음 맡은 역을 준비할수 있게 5~10분정도의 시간을 주어 그들이 준비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각기 자기 역들을 준비하는 동안 교원은 조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고 그들이 맡은 역에 대하여 정확히 리해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이때 일부 학생들이 말하려는 문장들을 적어보도록 할수도 있지만 실지 대화 연습을 할 때에는 그 문장들을 보지 않고 말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대화연습이 끝나면 조별로 학급앞에 나와서 발표하도록 한다.

역수행카드를 리용하는 말하기교수는 실생활정황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실물을 놓고 진행하면 보다 재미있게 진행될수 있다.

우리는 성인속성영어교육에서 학생들의 심리적특성과 교육의 목적에 맞게 여러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쓸모있는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성인속성영어교육, 말하기능력